

지난 10년 전남 살린 중국, 향후 10년이 위기



광양 컨테이너 부두는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로 우리나라 상품을 수출하는 중요 관문이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컨부두와 무안국제공항 등 훌륭한 교역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광주·전남은 산업기반 다각화로 대중 교역량을 늘려 지역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광주·전남 11년간 교역 5.8배 증가...수출산업 기반은 취약 2~3년내 FTA 체결 땐 전남 인구 23%인 농어업 '직격탄'

지난 10년동안 중국이 아니었다면 전남은 망했을 지도 모른다. 지난해 중국과의 교역에서 104억달러를 남겨 전체 적자 폭(-72억달러)을 줄이는 등 중국이 효자역할을 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은 중국이 전남을 위기에 빠뜨릴 것으로 우려된다. 2~3년 내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되면 전남 인구의 23%를 차지하는 농어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2일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광주일보가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가 잡힌 2000년부터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의 대중국 무역규모(21억6291만달러→148억8642달러, 588%)는 11년 사이에 5.8배 증가했다. 특히 전남은 17억4123만달러에서 134억9240만달러로 무려 674% 급성장했다. 광주는 230%(4억2168만달러→13억9401만달러) 증가했다.

중국은 전남의 첫번째 교역국이며, 광주는 미국·대만·일본에 이어 네번째다.

무역수지는 광주·전남 모두 흑자를 냈다.

11년동안 광주는 12억967만달러(수출 55억720만달러, 수입 42억

9763만달러)를, 전남은 535억2594만달러(수출 678억8344만달러, 수입 143억5749만달러)를 중국으로부터 벌어들였다. 흑자 규모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전남은 2000년 10억741만달러에서 2011년 104억6095만달러로 흑자 폭이 9배 이상(94억5353만달러, 938%) 증가했다.

2000년 3억3451만달러에 불과했던 광주의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8억5996만달러로 157% 늘었고, 수입은 8716만달러에서 5억3404만달러로 512% 증가했다. 전남은 이 기간동안 중국 수출 무려 771%(13억7432만달러→119억7667만달러), 수입은 313%(3억6690만달러→15억1572만달러) 급증했다.

수출품목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광주의 경우 2000년 수출품목은 전자부품(2억236만달러, 60.4%)과 가정용전자제품(5222만달러, 15.6%), 산업용전자제품(2962만달러, 8.8%) 등 전자 관련 제품이 84.8%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수송기계(2억5274만달러, 29.3%), 전자부품(2억2755만달러, 26.4%), 기초산업기계(8688만달러, 10.1%) 등으로 변했다.

이들 삼성전자와 대우일렉트로닉

스 중심의 가전에서 기아차 광주공장의 자동차가 주요 수출품목에 탑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은 농산물(2433만달러, 27.9%), 직물(1543만달러, 17.7%), 전자부품(1412만달러, 16.2%)에서 전자부품(1억5602만달러, 29.2%), 철강제품(6025만달러, 11.2%), 가정용전자제품(4932만달러, 9.2%) 등 원자재에서 기술제품으로 바뀌었다.

전남은 수출·수입 모두 석유화학제품과 철강제품, 광물성연료 등이 주를 이뤘다.

특히 석유화학제품은 지난해 64억4547만달러를 수출해 전체 대중국 수출액의 53.8%를 차지했다. 여기에 나프타·제트유·등유 등 광물성연료(40억4511만달러, 33.7%)와 정밀화학제품(1억6310만달러), 기타화학공업제품(1억3925만달러) 등을 포함하면 중국 수출의 90%가량을 여수산업단지가 맡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한 철강제품(10억4635만달러)의 수출도 8.7%에 달했다.

수입은 철강제품(4억1420만달러, 27.3%)이 가장 많았고, 이어 무연탄 등 광물성연료(3억4318만달러, 22.6%), 비철금속제품(1억5674만달러, 10.3%), 석유화학제품(1억2558만

달러, 8.2%), 정밀화학제품(1억1665만달러, 7.6%) 등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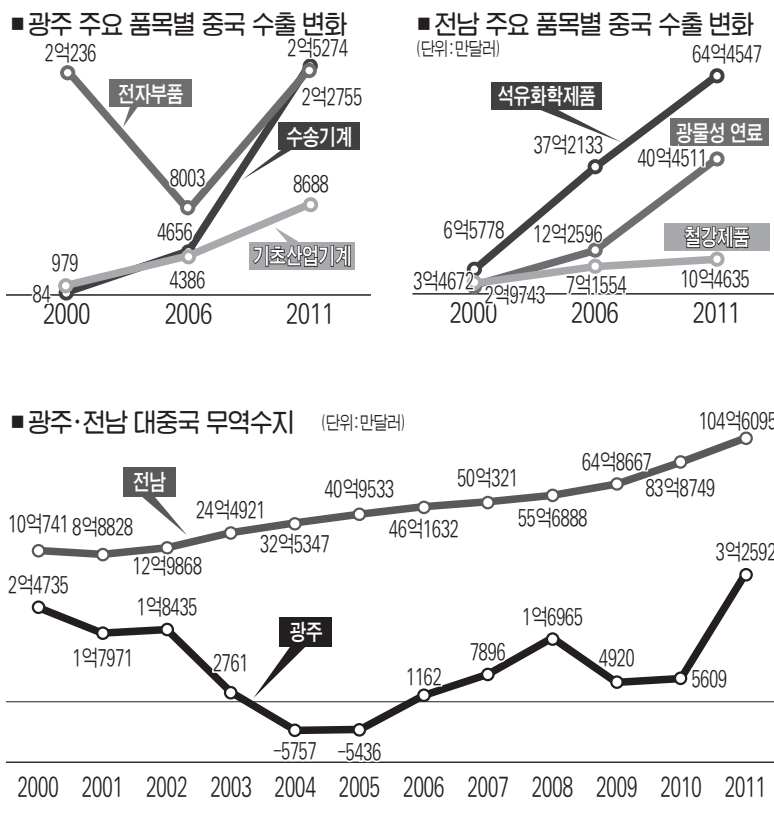
중국에서 원자재를 사들여 여수산업단지 광양산업단지에서 이를 가공해 되파는 방식의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

수산물과 농산물 수입은 각각 3384만달러와 1687만달러로 전체의 2.2%와 1.1%로 미미했다.

하지만 2~3년 내 한·중 FTA가 체결되면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이를 우려하고 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우리 나라와 가장 가깝고 생산구조도 비슷해 FTA가 체결되면 농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고추·마늘 등 민감 품목은 반드시 보호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2단계로 나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년 교역 없었다면 매년 16억달러 적자"

지난 20년간 한국과 중국의 교역이 없었다면 매년 16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봤을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통계로 본 한·중 수교 20주년'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2년 양국간 수교 이후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2726억달러로 같은 기간 전체 흑자 규모인 2397억달러를 넘었다. 이는 그간 대중국 흑자를 제외하면 매년 16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봤다는 의미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1992년 우리 경제의 교역량은 미국(23.0%), 일본(19.6%)이 전체의 40%를 넘고 중국은 4.0%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중국(20.4%), 일본(10.0%), 미국(9.3%)순으로 바뀌었다.

중국과의 교역량은 35배로 확대됐다.

양국간 관광교류도 크게 증가해 수교 원년 9만명이었던 방한 중국인 수는 작년 222만명으로 24.7배 늘었고 중국 관광객을 떠나는 한국인도 같은 기간 4만명에서 418만5000명으로 105배 급증했다.

/연합뉴스



호남대 공자아카데미 주최로 광주지역 초·중·고 등 130개 기관에서 무료 공연을 펼쳐 큰 인기를 끌었던 '중국 변형술사 공연'의 한 장면.

한·중 민간외교 중심에 선 호남대

호남대학교(총장 서감식)가 광주·전남지역의 중국어 전문교육 및 한중 문화·교류의 중심지로 역할을 해오면서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호남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교명이 통일한데다, '천년학부'라는 명성을 얻고 있는 중국 후난(湖南)대학교와 공동으로 중국 교육부 및 중국 국가대외어교화영도소조(韓辦)에 공자아카데미 개설을 신청, 지난 2006년 12월 '공자아카데미'를 공식 개관했다. 공자아카데미는 중국어 교육은 물론 다양한 학술·문화·예술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민간외교에 큰 기여를 했다.

올해 3월부터는 중국어자격시험인 HSK 주관 기관으로 공인 받아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특별 강좌와 중국어자격시험 전문 과정 반을 개설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공자아카데미는 광주시청, 광주지

06년 공자아카데미 설립 교육·문화·예술교류 선도

방경철총장, 광주 출입국 관리소 등 각종 공공기관의 중국어 위탁교육을 맡고 있으며, 중국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과 결연을 추진하는 등 한중 가교역할을 해왔다. 지난 2010년부터 광주하계U대회 중국어 통역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시민중국어과정 교육기관'으로 선정돼 시민통역 요원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및 교육CEO(교장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5기)	광주교육대학교(6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2. 9. 7(금) 09:10 (특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2. 9. 8(토) 09: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2. 9. 8(토) 14:10 (특급반)	월, 목 야간반: 2012. 9. 3(월) 19:00 (초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2. 9. 6(목) 09: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2. 9. 8(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2. 7. 26.(목)~9. 8.(토)	2012. 7. 26.(목)~9. 8.(토)
수업기간	2012. 9. 7.(금)~2013. 2. 16.(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2. 9. 6.(목)~2013. 2. 16.(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매주 목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요일·목요일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50,000 (예금주: 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350,000 (예금주: 광주교대) ·우체국: 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현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학원원장 감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병과 후 교육)장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 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현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학원원장 감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병과 후 교육)장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 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 011-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 062)520-4243 ·지도교수: 011-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

대출금리: 연5.5% ~ 대출금액: 1,000만원~8,000만원

공무원 대출

과다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 고금리를 이용중인 공무원을 위한 연5.5% 대출

이런분은 꼭!! 연락주세요

- 과다대출로 추가대출이 어려운 분
-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분

현재의 부채상황을 리모델링해 드립니다

리모델링전	1년이자비용
부채현황	4,600,000원
농협중앙회	70,000,000원
씨티은행	15,000,000원
지역은행	10,000,000원
상생카드론	9,000,000원
다들유저축	8,000,000원
SC저축은행	37,500,000원
솔로몬저축	15,000,000원
대부업체	20,000,000원
총부채	180,450,000원
총부채	36,035,000원

부채 리모델링 전 연간 이자비용이 3,600만원이었으나 리모델링 후 연간 이자비용이 1,445만원으로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본 사례 사례입니다. 부채 리모델링에 관심있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연5~15% 연체 추가비용 없음

하나로 채무통합 011-705-2230

등록번호: 2011-3430067-25-5-00028 주소: 대구 서구 평리로 215. 302호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평일방문 고객께

맥주 or 소주 1병
와인 or 생맥주 1잔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